

‘임을 위한...’ 작곡가가 바치는 ‘5·18 콘서트’

김종률씨 33주년 맞아 직접 기획

내달 18일 5·18 기념재단서 13곡 선배

군사 정권의 혹독한 탄압에도 질긴 생명력으로 여태껏 불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했던 김종률(55·JR 미디어 대표·사진)씨가 5·18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5월 광주를 찾는다.

5월 18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2층 민주홀에서 ‘5·18 인권상 시상식 축하 기념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김씨가 직접 기획해 5·18 기념재단에 제안해 성사됐다.

무대에는 김씨가 지난 1978년~1981년 작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 ‘검은 리본 달았지’, ‘밤이

오는 것일까’ 등 13곡이 선보인다. 5월 광주와 인연이 있는 가수 3~4명과 합창단 등을 직접 섭외해 출연시킬 계획도 세워놓았다.

콘서트 뿐만 아니라 토코도 결들여진다. 그는 콘서트 중간 중간 무대에 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등을 관객들에게 직접 풀어놓게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뒤 정보당국의 집요한 시달림 등도 털어놓을 예정이다.

김종률씨는 “지난 1981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담긴 ‘넋풀이’ 노래

극 테이프를 만든 뒤 바로 군입대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곡 제작 전후로 형사들에게 시달리긴 했지만 박관현·윤상원 등 떠난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올 때마다 광주에 빛을 쬐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도 했다. 그가 33주년이 지난 지금, 5월 광주에서 직접 기획한 콘서트를 여는 이유다.

음반 제작 등 음악활동을 해온 김씨는 3년 전 30주년 때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려다 재정적인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는 “광주에 작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던 중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작은 콘서트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광



주에 빛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어 광주 공연은 물론 해외에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10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공식식에서 배제되면서, 국가보훈처와 5월 단체가 30주년 기념식을 각각 따로 치르는 등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윤상원-박기순 열사

영혼결혼식 맞춰 탄생

■ 임을위한 행진곡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 노래는 1980년 5월 27일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군 지도부 윤상원(당시 30세) 열사와 이 무렵 노동현장에서 숨진 박기순(여·당시 21세)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모토로 했던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민중과 열망이 고조되던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대학 시위·노동 현장 등에서 하나의 민중의례처럼 애창되고 있는 이 노래의 작곡가는 당시 전남대 3학년이었던 김종률 씨다.

김씨는 황석영이 작사한 노랫말(원작 박기순의 시 ‘빛바라리’)로 곡을 만들었는데, 1981년 광주시 북구 양양동 황석영·홍희운의 집에서 몰래 녹음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됐다.

나원침 (8802) 김종두



대검 중수부 '역사 속으로'

관소로 가져가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화식'에서 박유수 대검찰청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내려 보

못 믿을 경찰 수사력

살인 미수 용의자 지목 불구 1주 넘도록 단서 못찾아

‘주일동 주차장 30대 여성 살인 미수 사건’ 수사가 피해자의 용의자 지목에도 불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1주일도 넘도록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

(여·31)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주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모자와 고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의자의 몸집이나 체취로 볼 때 예전 남자 친구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 유력한 용의자로 B(34)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B씨의 혐의를 확정지을만한 어떠한 단서도 건져내지 못했다. 당일 오후 6시40분께 서구 금호동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했다가 2시간 뒤 신원 미상의 강도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 범인을 검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화순 기숙사 건물서 기름 500ℓ 도둑천 유출

23일 새벽 1시 10분께 화순군 화순읍 양남리의 한 기숙사 건물에서 경유 500ℓ 가 도둑천으로 유출됐다. 경찰은 보일러기사가 기숙사 건물 지하 보일러실 기름저장탱크에 등유를 저장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등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름이 유출되자 보일러실에 설치된 배수 펌프가 작동해 기름이 도둑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수기자 css@

원어민 여교사가 폭행 남성 제압

○광주의 한 중학교 원어민 여교사가 ‘물지마 폭행’을 휘두르는 남성을 평소 배워둔 호신술로 격퇴.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A(여·28)씨는 지난 22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1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A씨의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고 나가 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며 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며 “평소 익힌 호신술로 맞서더니 도망갔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 검거에 돌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경찰, 진상조사 착수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층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당시 수사인 관계자들에게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울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등 수사 실무자들을 전담 불러 당시 수사 과정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층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광주경찰, 음주단속 대로변 확대

지역 무작위 선정·인력 증원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사전 예고제를 없애는 한편, 이면 도로 등에서만 이뤄졌던 음주 단속을 대로변에서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등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사위로 무작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등 무차별적 단속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 운전 에 따른 교통 사망사고가 줄지 않아 이면 도로 위주에서 이뤄지던 음주운

전단속을 대로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5명)가 전년 보다 줄지 않은데다, 지난해 음주 적발 건수(9678건)도 2011년(847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매일 한 차례(밤 9시~새벽 4시) 이면 도로에서 진행하던 음주 단속을 대로로 확대하고 두 차례로 늘리는 한편, 경찰서별로 1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방송을 통해 알려졌던 사전 예고제도 없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캠퍼스서 재판 열린다

광주지법, 30일 진행

지난달 연세대 이어 두번째

전남대 응봉캠퍼스에서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전

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호관 7층 모의법정에서 건물 철거 관련 민사소송 변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제 재판 절차를 익히게 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학생, 교직원,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날 연세대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 3부(부장판사 송기석)가 정전 정리,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재판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방청객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시트시공

2 단열베이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및 단열시트 시공

4 시공 후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친정 걸로방지 접면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발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쏠려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www.indara.co.kr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딱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얼거리거나 갈라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